



#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18년도 제2호

© Ismael Martínez Sánchez / ACN

“우리가 원천으로 돌아가서 복음 본연의 참신함을 되찾고자 노력할 때마다 새로운 길이 드러나고 창조적 방식이 보이며, 또 다른 형태의 표현과 더욱 설득력 있는 기호와 오늘날의 세계에 새로운 의미가 있는 어휘가 생겨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 제11항)

#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ACN 재단장이신 피아첸차 추기경께서 저에게 ACN의 일을 맡기셨던 것을 망설였던 게 벌써 7년 전입니다. 당시 저는 이 일을 그저 교회에서 부과하는 의무인 줄로만 알았기에 특별한 열정을 보이지 않았습니 다. 그때만 해도 저는 ACN을 잘 몰랐고 은퇴 이후 전혀 다른 일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난 7년을 지극히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뜻하신 대로 ACN을 교황청 재단으로 새롭게 출범시키는데 저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보물을 교회 내 원조기구들이 인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재단을 설립하신 베렌프리트 신부님은 우리의 사명을 박해받고 고통받는 교회와 사람들 사이에 사랑의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저는 이 다리 위에서, 그리고 다리의 양 끝에서 훌륭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위대한 선교사들과 자비로운 후원자 여러분이며, 국제 본부와 각국 지부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다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ACN 직원들입니다. 우리 과업의 위대한 열매는 오직 이 모든 분이 서로를 위해 바치는 기도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 주시는 여러분의 손은 날이 갈수록 빛이 날 것입니다.

ACN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제 삶은 한없이 풍성해졌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ACN 수석대표  
요하네스 헤르만 폰 쥐트비크  
*Johannes Freiherr Heereman*

브라질의 한 어촌에서 누군가가 “왜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어부가 대답했습니다. “물으로 다니는 사람은 땅에다가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항상 그 길로만 다니지요. 하지만 어부들은 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오늘 가는 길은 어제 갔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자 편한 길을 버리고 떠났던 이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일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선교란 동업자를 모으는 것도 아니고 고객을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를 써서 계획하는 일도 아닙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선교란 믿음의 문제이며,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믿는 우리 믿음의 정확한 지표”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선교의 목표는 교회의 규모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재정을 넉넉하게 하는 것도 아니며 교회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의 관심사는 단 하나, 사람의 시선과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께서 바로 사랑이시라는 것이 세세에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교란 바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나침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선교의 열매는 구원이며, 존엄성과 의미 차원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국가에서도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합니다. 선교의 필요성이 커질수록 우리의 용기와 주님 말씀에 관한 믿음과 더불어 ‘물 위를 걷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탈리아 기업가 마르첼로 칸디아(1916~1983)는 50대에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고 평신도 선교사로서 브라질로 가서 아마존 지역에 병원을 지어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제 사고방식이 변했습니다. 저는 기업가였기 때문에 진단, 계획, 프로젝트 같은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재정 문제로 돈과 은행 따위에 몰두했죠. 이 모든 것은 수학적 논리가 뒤따르는 일이었고 저는 늘 걱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일한다면, 우리가 값야 할 돈을 다른 방식으로 갚게 된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돈을 내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0%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40%쯤 될까요. 나머지는 혼자서 병을 다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세운 병원을 잘 운영하려면 항상 적자를 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ACN은 늘 이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때우는데 지금보다 큰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하느님께서서는 앞을 내다보십니다.”  
브라질 선교사의 배에는 각각 선교 표어가 적혀 있습니다.

© Ismael Martínez Sánchez / ACN

**“우리의 희망은 그저 낙관론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상의 것이지요! 신앙인은 머리 위에 ‘하늘 한 자락’을 더 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늘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존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2017년 10월 4일 수요 일반 알현 중)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루카 24,21) 그러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여 의미도 목적도 없는 앞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부활을 알아차렸고, 바로 그 순간 하느님께서 주시는 커다란 희망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미래를 본 그들은 희망으로 가득 찼고 하늘나라로 가는 날까지 확실하고 튼튼한 영혼의 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시인 샤를 페귀는 향주삼덕 가운데 두 번째인 희망을 한 소녀에 비유하며 “믿음과 사랑이라는 큰 누이들에게 가려져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믿음과 사랑을 모두 얻는 건 바로 이 작은 아이(희망)”라고 말했습니다. 샤를 페귀에 따르면 “믿음은 존재하는 것을 볼 뿐이지만, 희망은 무엇이 이루어질지 봅니다. 사랑은 존재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지만, 희망은 무엇이 일어날지 봅니다. 희망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해서

믿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 역시 단순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품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직 이 희망 하나에만 의지해서 고문과 투옥 등 여러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희망은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피안의 삶에만 의지하는 것도 아닌, 세상의 행복과 구원을 흔들림 없이 지향하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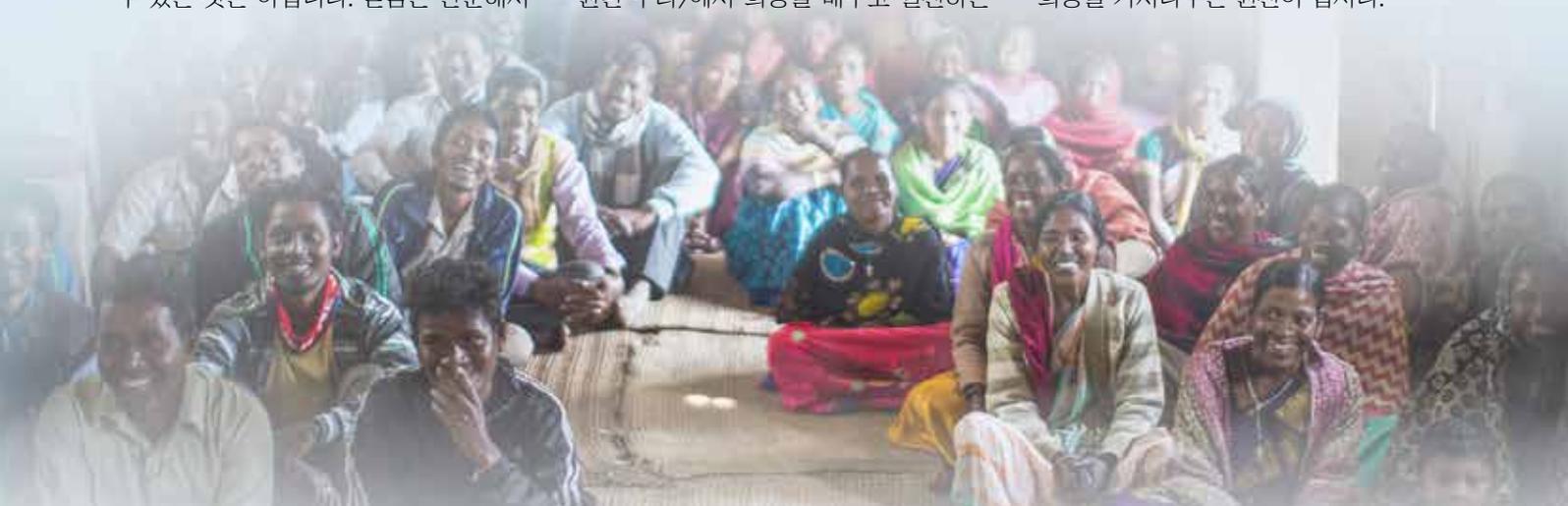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참된 정신을 일깨우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유, 이성이나 진보 같은 것으로는 이 세상의 비참한 현실을 단지 어느 정도만 개혁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써 우리 안에 구원을 향한 희망이 살아 숨 쉴 때 우리는 실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회칙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에서 희망을 배우고 실천하는

세 가지 행동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청원의 가장 본질적인 형태로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언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성실하고 올바른 활동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성과 없이 정제된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또는 악한 세력의 위협 앞에서 좌절하거나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에게 용기가 있기 때문에 나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통을 함께 하는 것과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통을 덜고자 노력해야 하지만, 하느님만이 고통을 덜어 주시고 이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하느님과 함께하고 받아들이며 ‘봉헌’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가진 희망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희망을 통해 우리는 악과 죄를, 고통의 근원을 세상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와 선행과 고통을 나누며 아픔을 마주한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됩시다.





## 평화에 헌신하다

오디샤는 무명 순교자들의 땅입니다. 많은 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이곳 가톨릭 신자들의 보물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 Ismael Martínez Sanchez / ACN



쿠마르 주교는 “10년 전의 박해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지역 신자들은 수만 명에 이르는 광신적인 근본주의 무리를 피해 전국 곳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과거에 입은 상처의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고,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말씀을 성실하게 따르는 것으로 증명되며 용서로 완성된다는 것도 알려 줍니다. 오디샤에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용서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 쿠마르 주교는 “이들은 말씀에 굽주린 사람들”이라고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렇기에 오디샤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쓰인 하느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디아어로 된 신약성경 ‘누탄 니암’이 나온 적이 있지만 이미 오래 전에 절판되었습니

다. 사제와 수녀는 물론 많은 이들이 10년 넘게 새 성경 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디샤의 주교 여섯 명이 힘을 합쳐 새 성경 출판을 진행 중입니다. 이 성경은 내용은 고치지 않은 채 신자들에게 더 적합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단순한 형태로 제작해서 5만 부를 인쇄할 예정입니다. 한 권당 가격은 13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ACN은 오디샤의 주교들에게 새 성경 발행을 위해 약 6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곳 신자들은 마음이 풍요롭고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지만, 손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적 협력자와 지도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지역 여섯 교구에서는 청년과 여성 공동체를 비롯한 여러 공동체를 담당하는 250명의 영적 협력자들이 3년간 주말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후 인도

카스트 제도의 최하층인 ‘불가촉천민’ 달리트와 다양한 민족이 사는 마을로 파견됩니다. 그곳에서 사제들이 주민들과 더욱 활발히 만날 수 있도록 도우며 그 관계를 돈독히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혼인 교리 강의, 장례 미사 전례 봉사, 주일 미사 준비, 기도 모임 지도 등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데에는 교육 기자재, 교과서, 성경, 가톨릭 사회교리서, 인권 관련 서적, 백과사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일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활동수기 등이 필요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탄탄하게 짜여 있으며 교육을 받는 청년과 여성들은 열의가 가득합니다. 이런 모습은 오디샤 주의 여섯 교구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며 사회 평화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ACN은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위해 약 3900만 원을 전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불가촉천민의 영혼을 위한 양식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 비하르 지방에서 평화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은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적 사건 이상의 의미가 있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비하르는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비하르에서 가톨릭 신자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가장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이야기한다면 적지 않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진 빚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역주: 라틴어와 영어 등 일부 언어에서 ‘죄를 용서하다’는 ‘빚을 갚는다’와 같은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고리대에 시달려 그 빚을 결코 갚을 수 없습니다. 유독 그리스도인에게 이 이야기가 해당하는 것은 대부분 ‘달리트’ 계급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달리트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수가 없어서 도시 변두리에서만 거주해야 하며 아이들을 인가된 학교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성들은 소공동체를 이루어 읽고 쓰는 것을 배우고 공동 기도를 바치며 하느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것, 가정은 사리사욕 없는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리, 바느질, 가게 재정 관리 등 실생활에 유용한 것도 배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 소공동체는 가난한 가정과 구성원들의 마음에 기쁨의 복음을 전해 줍니다. 박사르 교구의 여성 신자 300명이 이 소공동체 프로그램 중 하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외되지 않았으며 신앙이 서로를 이어 주고 믿음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ACN은 이 공동체에 약 15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가난하기로 손꼽히는 달리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은 무사하르족입니다. **이들을 위해 사목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글라렛 수도회 사제들이 ACN에 다목적홀 건설 비용으로 약 65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다목적홀에서 무사하르족 어린이들이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제들은 새로 지을 공간이 “이곳 주민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며, 자신감을 얻고 자신들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바로 ‘고통받는 교회’입니다. ACN은 다목적홀 건설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달리트 계급 사람들은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도



박사르 교구의 그리스도 왕 대축일 행렬  
© Ismael Martinez Sanchez / ACN

비하르의 성경 공부 시간

### 지원사업 in 오디샤

- 종교서적 출판
- 교육 프로그램

### 지원사업 in 비하르

- 소공동체 활동
- 다목적홀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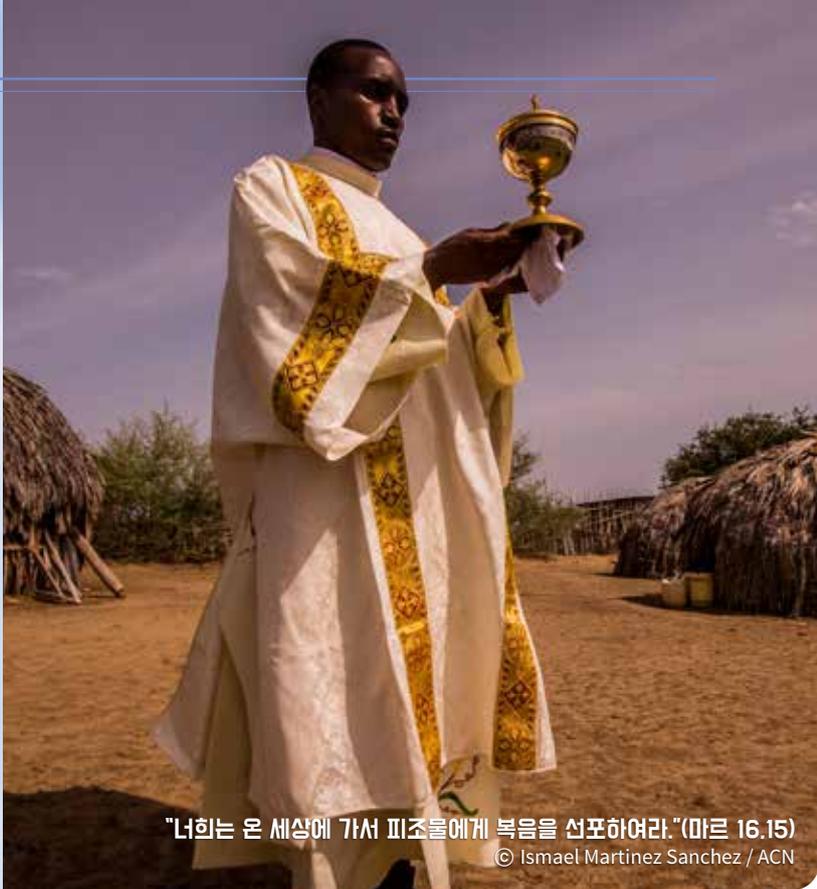
### 지원금액

약 1억 9천만 원



#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가난의 뿌리를 뽑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 Ismael Martinez Sanchez / ACN

케냐 북부와 남수단 사이의 사막화된 지역만큼 성령께 구체적이고 진실하게 기도를 드리는 곳은 아마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케냐 말린디 교구는 메마르고 고립되어 발전이 더딘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비포장도로만 있고 제대로 된 길이 없습니다. 물도 없어 땅에 여러 구멍을 파서 물을 찾아야 하며,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스피리탄 사제회 소속 신부들은 바로 이곳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단지 먹을 것이나 물, 의약품 같은 것에 목말라하고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갈망하고 하느님 사랑의 불을 그리워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신부들이 이런 갈망을 채워 주려면 운송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관구장 존 음빈다 신부는 “우리가 가난과 싸운다면 그것은 하느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신부들은 땅에 구멍을 뚫어 우물을 파는 장치를 옮기고 중병에 걸린 사람과 만삭의 산모를 병원으로 데려다줍니다.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용품과 생필품도 실어 날라서 교육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난을 뿌리 뽑고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기 위한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합니다.

이곳의 주민 대부분은 사랑의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곧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진실할 수 있는지 깨닫습니다. 이것은 땅끝까지 향하는 선교입니다.

존 음빈다 신부가 ACN에 사륜구동 자동차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ACN은 스피리탄 사제회 신부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100만 원을 전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물론 이 선교용 자동차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없겠지만, 더욱 많은 일들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사업	지원목적	지원금액
문송수단 지원	사륜구동 차량	3100만 원

## 방방곡곡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사제를 파견하는 것은 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지역에 사제가 부족한 때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일을 그만두거나 거룩한 신비의 축제를 거행하고 양 떼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던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새롭게 부르신다는 확신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2006년 성소주일에 위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돌린 마몬지바비 신부는 대학 입학 자격시험을 보고 톨라나로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기로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 지나 올해 2018년은 마몬지바비 신부가 사제 생활을 하는 첫해입니다. 그는 거룩한 신비의 축제를 거행하고 양 떼를 돌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그의 성소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확신이 옳았음을 입증해 줍니다. 마몬지바비 신부는 “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자 성사도 그의 소임이며, 환자들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자 노인들을 방문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항상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몬지바비 신부가 사제 서품을 받은 날 신학생 다섯 명이 부제 서품을 받았는데, 브루노 삼보 부제가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피조물로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외국인 선교사들이 쉽 없이 일하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마치 사도들처럼 온전히 타인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대부분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본 삼보 부제는 하느님께 “저를 이 땅과 우리 민족을 당신께 향하는 길로 이끄는 사제가 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명예를 편하게 하고 짐을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사랑을 전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의 친구인 장 니콜라 발레소아 부제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주님을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에 사는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는 선교사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서 14세에 세례를 받고 첫 영성체를 했습니다. 발레소아 부제는 머지않아 사제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고향 마을의 언어로 복음의 빛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부제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방방곡곡에 복음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없으면 모든 마을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마태오 복음서에 나온 군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마태 9,36) 그 군중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마태 9,37-38)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와 마다가스카르에도 적용됩니다. ACN은 마다가스카르의 부제들에게 오토바이 여섯 대 구매 비용 2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치유의 목자들이 톨라나로 교구의 모든 마을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원사업	지원목적	지원금액
은총수단 지원	오토바이 6대 구입	2800만 원



## 새 복음화의 시작, 혼인과 가정

“혼인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도 친교이십니다. 세 위격,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언제나 완벽한 일치를 이루시며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사랑의 기쁨 121항)

혼인성사의 이 놀라운 깊이에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정에 관한 사도적 권고 <사랑의 기쁨>에서 많은 조언을 하였고, 여러 교구가 이를 가정 사목을 위한 기초 교육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그리스 가톨릭 오라데아 교구에서는 3년 전부터 성인과 청년 대상으로 혼인과 가정에 대한 다년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먼저 수강생 자신의 삶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수강생들은 성당에서 신자와 비신자들에게 결혼과 가정은 “사회 질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희망과 믿음과 사랑의 터전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삶과 사랑의 가치를 배우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나자 교구 내 출생아 수와 성소 희망자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많은 청년이 사제직을 희망하고 있으며, 냉담 중인 교우들도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 열심히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언제나 재미있지만 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봉사과 가정에서의 봉사’나 ‘용서와 형제적 충고’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은 많은 이에게 영적 쇄신과 회복의 시간이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참여자들은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친교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흥미도 커지고 참여자 수도 늘어나서 현재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사실 지금 루마니아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32만 원 남짓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프로그램에 참여할 만큼 여유를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이에 **비르길 베르체아 주교가 ACN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으로 더 많은 사람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부하게 될 것이며 복음도 더 널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ACN은 앞으로 3년 동안 약 1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씀하셨듯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리 교육과 가정 사목은 교회와 사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교리 교육은 젊은 부부가 가정 안에서 복음 선포자라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도록 교육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사랑의 기쁨 287항)

새 신학생 역시 가정 사목과 교리 교육의 열매이다



### 지원사업 in 루마니아

혼인 및 가정 교육 프로그램

#### 지원금액

1300만 원

### 지원사업 in 남미

사제 재교육 과정 참석 지원

#### 지원금액

1억 4000만 원

# 진리의 사제들

진리와 사랑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회칙 <진리 안의 사랑>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리 안의 사랑은 모든 이가 받는 은총이므로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며, 어떠한 장벽이나 경계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일치시키기” 때문입니다.



사제 재교육 과정에 참석한 사제들이 성체성사를 공동으로 집전하고 있다



성 베드로의 무덤 앞에서 사제 서약을 갱신한 신부들

남미 각국의 사제 재교육 담당자로서 성직자성의 초대를 받아 4주간의 연수 과정에 참가한 사제 51명은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힘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경탄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로마로 온 프란치스코 실바 신부는 자국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지쳐 있었지만, 내적으로 다시 강해지고 많은 아이디어와 희망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거룩한 사제가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며 공동체를 위한 누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파라과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 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온 엔리케로 누네스 신부는 자국에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좋은 목자이시며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볼리비아 출신 하비에르 우리아 바

스케스 신부는 사제들이 모든 이에게 열려 있을 수 있게 만드는 진리의 길은 바로 성체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모든 신자를 한데 묶어 주는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재교육 과정은 사제들이 형제애를 경험하는 인상적인 자리였습니다. 사제들은 단지 자신이 겪은 것을 나누기만 한 게 아니라 각종 문제에 대한 사목적 해결책을 찾고 우리 시대의 진리와 영원한 진리를 한층 더 깊게 인식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이 큰 성과를 거둔 덕분에 교황청립 스페인 신학원인 로마 산호세 신학원은 학습, 기도, 로마 시내 탐방 등을 포함한 세 번째 과정을 올해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신학적, 선교적, 사목적 문제와 더불어 ‘사제의 정신건강’, ‘사제의 인간적 성숙 척도’, ‘인간관계’ 등을 다루는 과목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사제의 삶과 업무는 오늘날 끊임없는 도

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를 완수하는 것이 재교육 과정의 목표이며, 그 내용과 경험은 여러 지역의 소규모 재교육 과정에 전달될 것입니다. 300명 이상 사제들이 지난해 지역별 재교육 과정에 참가했습니다.

진리의 힘에는 어떠한 경계도 장벽도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와 폭력이 난무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제들이 다양성 안의 일치를 경험하며 이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만남의 신학’의 원동력은 로마에서 사제들이 함께 모이는 데서 나옵니다.

**로마에 체류하면서 4주간 재교육 과정에 참석하는 데 사제 한 명당 28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성직자성은 ACN에 사제 50명이 참가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ACN은 교황청 재단이기 때문에 이 요청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 이라크 그리스도교의 존립을 위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물 받은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주저 없이 경매에 붙이셨고 그 수익 가운데 일부를 ACN에 기부하셨습니다. 이라크 북부 니네베 평원 출신 그리스도인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라크 그리스도인들은 큰 감동을 하였습니다. 칼데아 가톨릭교회 루이스 라파엘 사코 총대주교는 “교황님의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이웃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신 것”이며 “교황님은 비록 우리에게 직접 오지는 않으셨지만, 인간적이고 영적인 것이 때때로 물리적인 것보다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리스도인들의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니네베 평원에서는 ACN의 도움을 받아 주택과 성당을 개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모든 종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스도교는 관용을 증진하고 폭력에 반대하는 개방성의 원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람보르기니에 서명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 쿠바의 '마리아의 중, 병자들의 도움' 수녀회에 지원한 금액이 4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브루닐다 수녀가 편지를 보내서 자신과 세 명의 동료 수녀들이 “ACN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하느님 섭리의 맥박으로” 생활하면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인간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통 받으며 의약품도 구하지 못하고 집마저도 폭풍에 파괴되어 버린 사람들을 돕는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 있습니다. 수녀들이 손발이라면 후원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쿠바에서 살아 있을 수 있게 해 주는 심장과 신경입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보태 주시지 않았다면 수녀들은 하느님의 손을 펼칠 수 없었을 것이고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은 채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돌보며 하느님의 자비를 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원사업

이라크

쿠바



기금 지원



니네베 평원  
재건 사업



수녀회 생계  
및 운영 지원



방송



## 가톨릭평화방송TV 다큐 <믿음의 얼굴>

차별, 박해, 가난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교회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ACN과 CPBC가 함께 제작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cpbc.co.kr/TV/9062> | 채널: 위성TV 184번 | IPTV ollehTV 231번 / Btv 307번 / U+TVG 184번

### 방송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10:20	(본방송)
토요일	오후 20:00	(재)
일요일	오전 04:20	(재)
월요일	오후 15:20	(재)

### 편성계획(2018년4월)

제11회	미얀마: 같은 여정 속에서	4월 6일 (본)
제12회	인도네시아 부르심	4월 13일
제13회	미얀마 꿈의 언덕	4월 20일
제14회	희망의 교회	4월 27일



### ACN 상설 전시장 '박해받고 잊혀지다' 개막

지난 3월 10일 서울 철두산 순교성지에서 '박해받고 잊혀지다'를 주제로 ACN 상설 전시장이 열렸습니다. 전시장 개막미사는 ACN 한국지부 이사장인 염수정 추기경(서울대교구장)이 집전했으며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대리 유경춘 주교와 원종현 주임신부가 함께하였습니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 목동성당 방문

ACN 한국지부는 3월 10일과 11일 서울대교구 목동성당을 방문해 미사에 참례하고 ACN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박명근 주임신부님과 배기환 신부님 그리고 목동 본당 교우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다 읽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고통받는 교회 돕기

검색

교황청  
재단

